

한국전력공사 벤치마킹 Smart Grid Station



스마트그리드는 ‘최신의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의미한다.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는 스마트그리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현방안을 연구해 왔고, 실제 이를 적용한 사옥을 늘려가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는 이번 벤치마킹 대상지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구리지사를 선정했다.

환경 문제는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인류는 그 부작용에 시달려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기상이변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연료 고가의 위험과 수급 불안정은 많은 개인 및 단체들이 에너지 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스마트그리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실천을 하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전에서는 이를 통해 전기품질 개선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한전에서는 K-BEMS(구 SG 스테이션)라는 건물 에너지 관리 운영 시스템을 통해 이

를 실천하고 있다. K-BEMS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전력 저장장치를 통해 피크 시간대를 피하며, 건물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제어 센터에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기존의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해 최적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일컫는 것이다.

K-BEMS는 피크 전력 5% 감소, 전력 사용량 9.6% 절감, 이산화탄소 5%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활용함으로써 국내의 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까지 불러일으켰다. 구체적으로 K-BEMS가 관리하는 부문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를 통한 신재생 발전, ESS(전력 저장시스템)를 통한 전력저장, BAS(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건물 자동화, 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설치 등이 있다. 한전에서는 K-BEMS를 운영한 결과 전력 피크를 5%만큼 감소시키고, 전력사용량을 10%만큼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개별 기술, 가령 신재생 에너지와 전력저장시스템, 건물자동화시스템 등 기존의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었고, 중소기업 위주의



△ K-BEMS 신재생 발전 기술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기

ICT기술 사용으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전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다른 한전 사옥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한전 사옥 뿐 아니라 사외 구축, 해외 사업 추진 등 사회 전반에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한전은 16년 11월 미국의 몽고메리 대학과 ‘몽고메리 대학 스마트 캠퍼스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이 개발한 에너지 솔루션을 대학교에 적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보았을 때, 국내 대학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에너지의 효율적 생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절약적 소비 또한 하나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기존전력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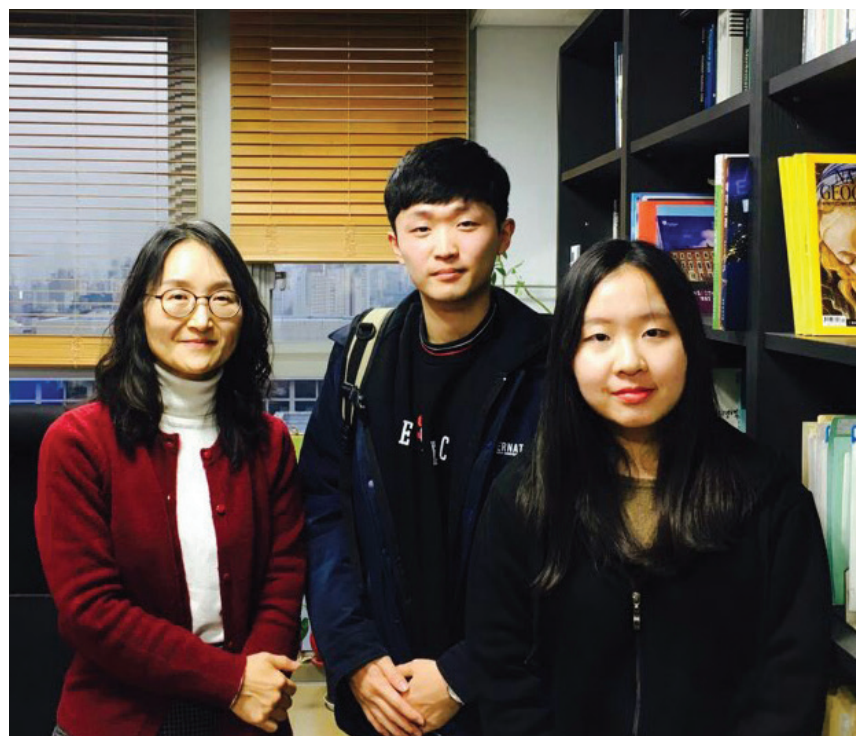
ICT 기술



스마트 그리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이미혜 교수님 인터뷰



Q.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탄소배출 규제를 통한 지구온난화 해법'을 반대하는 회의론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소배출 규제에 반대하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에도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당장 생계가 힘든 사람들에게겐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회의론자 대부분은 두루뭉술하게 일부 데이터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도 많습니니다. 요점을 집어서 지구온난화의 근거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전부 틀리고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함께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것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환경운동은 결국 환경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어떤 문제에서든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주장도 바람직하진 않겠죠.

환경론자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환경문제를 진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회의론자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따로 제시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해역에서 엑손 발데스 유조선이 좌초되어서 4200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니다. 미국정부는 엑손사에 엄청난 비용의 정화비용을 청구했는데, 여기서도 환경론자들은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회의론자들은 석유가 인공물이 아닌 자연물인데, 이를 정화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피해가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고 당시에 매스컴을 통해 환경문제가 부각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협심에 너도나도 정화활동에 참여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안반도에서 한번 사용하고 버린, 신발, 옷 등은 또 다른 쓰레기 배출로 이어집니다.

두 주장중 하나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밸런스를 찾고, 점진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적정선을 맞추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Q. 최근 갑자기 한파가 일어난 이유는 북극진동(Arctic oscillation) 때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기후 변화와도 연관이 있나요?

자연은 평형을 이루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에너지 축적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구 기후에는 어느 정도 주기성이 나타납니다. 북극진동도 그 중 하나로, 엘니뇨-라니냐와 비슷하게 positive-negative 두 상태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각 상태에서 전반적인 지구의 기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positive상태서 negative 상태가 되면 편서풍, 제트스트림이 약화되며 이들이 가두고 있던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풀려나 대륙 곳곳으로 남하해 한파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작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구 기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운동이 주기성을 띠며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는 추세에서는 축적되는 에너지에 따른 불균형도 더 커지게 되고 균형을 이루려는 진동의 세기가 커져 체감 상 크게 다가와 기후 변화, 이상기후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Q. 이산화탄소와 온도증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온도가 증가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온도는 에너지를 표현해주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농도를 나타냅니다. 이산화탄소가 높은 시기에 온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아이스크림 자료를 보아도 확실하며, 두 값 사이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에 있는 과거자료로 인과관계를 해명하기는 힘듭니다. 두 사건의 시간차가 짧아야 인과관계를 쉽게 해명 할 수 있는데, 기후의 경우 그 시간차도 크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너무 많아 단순히 '이산화탄소가 현재의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 주범이다' 고 100% 확실히 주장하기 힘듭니다.

Q.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율적인 방법은 강요와 설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손해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살면 나중에 결국 남들도 인정해줍니다. 그러려면, 버릴만한 것이 자신에게도 있어야하는데, 대학교 다니는 학생시절에 버릴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남들에게 하나씩 줘도 자연스레 그만큼 생겨납니다. 여기 인터뷰 하러 온 학생들은 환경문제에 나름 관심이 있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책임감을 느껴 여기까지 왔겠죠. 하지만 학생일 때 환경문제에 대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살아온 패턴과 인생이 모여야 남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겠죠. 학생일 때 지금 하고 있는 그린캠퍼스 같이 홍보와 관련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주변의 관심을 끌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성공적인 활동일 것입니다. 아니면, 봉사의 측면에서 중, 고등학생들에게 환경문제를 인지시켜주는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 패시브 하우스의 선두주자 「살둔 제로에너지 하우스」

「살둔제로에너지 하우스」
이대철 작가님 인터뷰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주거양식을 일컫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다.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2012, 시골생활)의 저자 이대철 씨 또한 이러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대철 씨는 한국에서 직접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짓고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에너지 절약 실천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는 학우들에게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를 소개하고, 한 발 나아가 작가의 직접적인 생각을 전달하고자 이대철 작가와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이다.

Q. 주거용 주택을 에너지제로하우스로 지어 살고 계신데, 다른 형태의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주택이 모든 주택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개인주택에 적용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아파트나 다른 일반 건물에 적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주택이든지 이러한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수 있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Q. 혹시 이미 다세대 주택에 패시브 하우스에 적용되는 기술을 활용해서 건축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집(패시브하우스)이 지어진 것이 약 200채쯤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것만도 100여 채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지은 것은 정확히 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지은 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도 다 패시브 하우스의 형태로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짓거나 관여하신 패시브 하우스가 여러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모두 다를 텐데,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나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고 생각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도도 겨울에 추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홍천)처럼 온도는 내려가지 않지만 느끼는 온도는 똑같이 춥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로 보면 되지 지역별로 특징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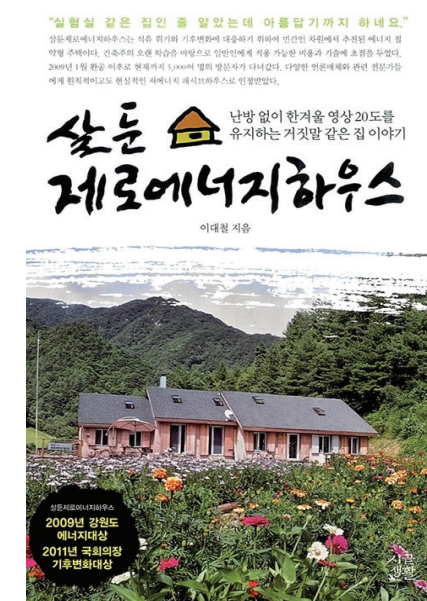
Q. 그렇지만 도시나 시골은 채광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주거 환경이 다른데, 이를 감안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그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싶은 사람은 남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데에 집을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원칙일 뿐이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늘진 곳에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장소에 맞게 디자인 해야겠죠.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공부를, 다양한 독서를 통해 하길 바랍니다. 지식을 공짜로 얻으려는 것이 아닌 학구적인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관계된 책도 약 10권쯤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하나하나 읽다보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독후감
「살둔제로 에너지하우스」를 읽고
김소현 (식품공학과 16)



'난방 없이 한겨울 영상20도를 유지하는 거짓말 같은 집'
한겨울에도 난방 없이 영상20도를 유지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집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짓기 전에 용인에서 전원생활을 하였던 작가님은 살둔 마을로 이사하시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살기 좋은 집'을 짓자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 독서를 좋아하시는 작가님은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책을 주로 읽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제로에너지하우스 보급을 위해서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설에 필요한 지식 나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실거주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더 살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닌 것이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 위촉식



지난 2017년 1월 16일 본교 주진수 관리처장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로 활동하게 된 박승진(바이오의공학부), 김민준(보건환경융합과학부), 이세영(지구환경과학과), 김채영(식품자원경제학과), 조선민(경영학과), 김소현(식품공학과) 6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본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는 지난 1월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2월 10일까지 에너지 감시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활동, 캠퍼스 및 개운산 나눔 활동, 한국전기공사 벤치마킹과 인터뷰 등, 교내외 단체 연계활동을 수행하였다.



△ 캠퍼스 내 에너지 감시 활동중인 홍보대사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란?

그린캠퍼스 담당 부서인 에너지안전팀은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이상 기후 등의 기후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캠퍼스 내의 전반적인 전력사용량을 관리하는 활동 외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그린캠퍼스에 관한 인식을 홍보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홍보대사 활동”이 있다.

2012년 7월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기로 시작된 이 홍보대사 활동은 어 느덧 10기를 배출하였다. 매년 구성원은 달라지고, 방학에만 활동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홍보대사들은 열정과 적극성으로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활동을 하는 등 본교를 Green Campus로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은 그린캠퍼스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학생과 학교 사이의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교내 에너지낭비 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그린캠퍼스 관련 활동 진행과 참여를 통해 본교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Green Campus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 다소비기관인 대학이 주도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이 큰 힘이 될 것이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방학 중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

학생들은 인문계·자연계·녹지캠퍼스의 각 건물을 순찰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18~20℃)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에너지 사용 실태를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빈 강의실에 켜져 있는 전등이나, 채광이 좋은 복도 등지에 켜진 전등을 끄는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권장하는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 활동

본교 에너지안전팀에서는 기후변화 및 자원낭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캠퍼스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10기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및 중앙광장과 하나스퀘어에서 각각 진행한 담요, 양말 나눔행사와 설문조사 실시, 개운산 나눔행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행하였다.

● 캠퍼스 나눔행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린캠퍼스의 겨울나기 물품 나눔 프로젝트!

설문조사와 이벤트 참여하고 따뜻한 담요와 이쁜 양말 받아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Facebook, 고파스에 SNS홍보물로 쓰인 포스터



2017년 01월 19일 목요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중앙광장 지하와 하나스퀘어에서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열람실의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과한 난방 없이도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담요와 양말을 준비했다. 또한 설문조사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에 나는 무료담요에는 그린캠퍼스 로고가 적혀있어 학우들에게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에 대한 홍보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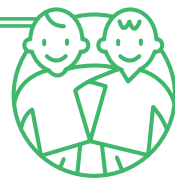
● 개운산 나눔행사



2017년 02월 02일 목요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개운산 헬스클럽 근방에서 양말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기숙사 뒤편의 KU정의길에는 개운산 등산코스가 있다. 등산로를 따라 계속 올라가면, 개운 헬스클럽이 나온다. 겨울철이고 아직 눈이 덜 녹은 곳이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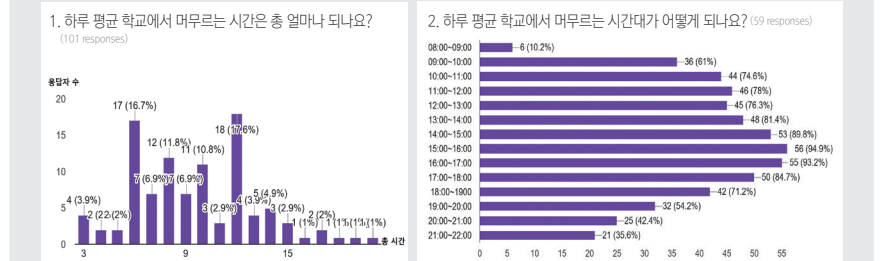


어르신들, 등산을 나오신 분들이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도정한 양말을 준비했고, ‘사람도 웃고, 자연도 웃고 우리 모두의 개운산을 아껴줍시다.’ 라는 문구가 담긴 쪽지와 함께 나누어드리면서 개운산의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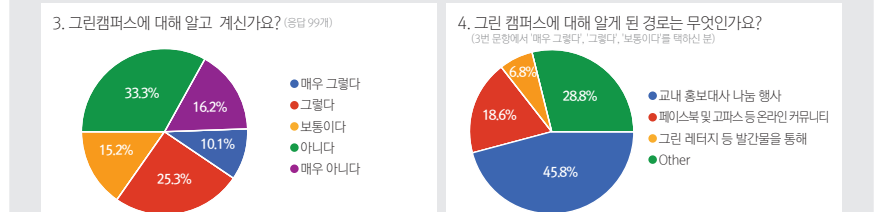


● 그린캠퍼스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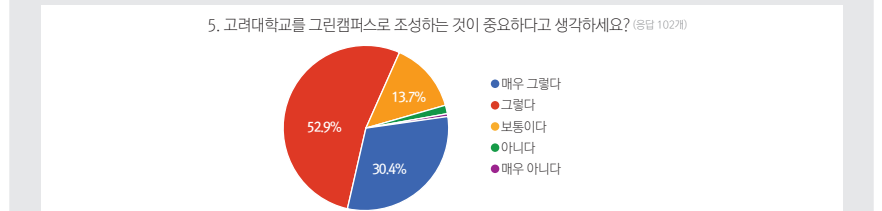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나눔 행사와 동시에 진행되어 5개의 문항을 통해 캠퍼스 에너지 이용현황, 그린캠퍼스에 대한 인식, 그린캠퍼스를 위해 필요한 노력 및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다음 기수의 에너지 감시 활동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학우들의 캠퍼스 이용 시간대와 건물을 조사하였다. 하나스퀘어, 중앙광장, 과학도서관 순으로 학교 건물이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응답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문 총 시간은 6시간과 12시간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시간대 조사 결과 15시~18시 사이에 교내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우들의 캠퍼스 사용 경향조사는 다음 홍보대사들의 에너지 감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내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때 교내 인구가 많은 시간대와 장소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린캠퍼스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33.3%)'와 '매우 아니다(16.2%)'가 총 49.5%로 나타나 그린캠퍼스를 모르고 있던 학생들이 절반 정도임을 나타냈다. 그린캠퍼스를 알고 있던 학우들은 교내 홍보대사 나눔행사(45.8%), 페이스북 및 고파스 온라인 커뮤니티(18.6%)를 통해 주로 접하였다.



고려대학교를 그린캠퍼스로 조성하는 것에 '매우 그렇다(30.4%)'와 '그렇다(52.9%)'가 83.3%로 긍정적 응답이 과반을 이루었다. 3, 5번 문항에서 볼 수 있듯 학생들은 그린캠퍼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대사들은 학생들에게 그린캠퍼스의 의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Green Campus 뉴스레터 9호

발행인	주진수 관리처장
발행처	관리처 에너지안전팀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편집인	진상규
편집기자	박승진, 김민준, 이세영, 김채영, 조선민, 김소현
전화	02-3290-2765
홈페이지	kugc.korea.ac.kr
인쇄	신사고 하이테크(070-7335-4602)



KU Green Campus 활동

Facebook을 통한 홍보활동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는 KU Green Campus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였다. 위촉식, 나눔행사 홍보, 그린레터지분 아니라 환경뉴스 기사를 주기적으로 게시해 그린캠퍼스에 대해 홍보하였다.

그린캠퍼스 협약식과 성과 보고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16년도 그린캠퍼스 협약식과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대학의 지속가능 발전과 친환경문화 확산을 위해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년도까지 모두 40개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6년도에 그린캠퍼스에 선정된 대학은 강동대, 대구대, 창원대, 청주대, 협성대 등 5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은 3월 공고를 통해 선정됐다. 그린캠퍼스 우수대학에 선정된 10개 대학에 대한 시상과 성과보고회가 이어졌다. 2013년~2015년 선정돼 사업을 진행해온 20개 대학 중 고려대는 참여확산 부문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출처:이뉴스투데이

그린캠퍼스 제휴 카페



고려대학교에는 그린캠퍼스와 제휴를 맺은 카페가 4곳이 존재한다. 하나과학관에 위치하고 있는 1호점 'Marrone', 중앙광장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2호점 'Ti-amò', 미디어관 옆 골목에 위치해 있는 3호점 'Maggiore', 마지막으로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는 4호점 'Orgo'가 있다. 이 4곳의 카페는 일회용 컵 대신에 본인의 텀블러를 이용할 경우 음료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호점의 경우

200원, 2호점은 100원, 3호점은 음료 값의 10%, 4호점은 200원이다. 교내 그린캠퍼스 제휴 카페 이외에도 스타벅스, 카페메네 등과 같은 카페 브랜드들에서도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할인, 텀블러 세척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 지도는 그린캠퍼스 홍보대사가 정리한 카페 별 텀블러 사용 혜택, 고려대학교 주변의 텀블러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페의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돈도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텀블러를 들고 그린캠퍼스 제휴카페에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

그린캠퍼스협의회 Low Carbon Sustainability

대학의 전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저탄소(Low Carbon)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기반으로 삼고 운영하는대학

| 온실가스 목표관리협의회 |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무협의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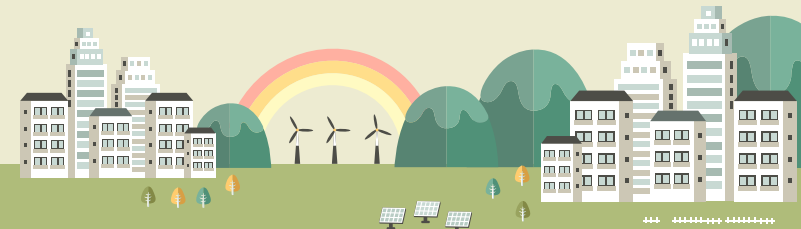


| 녹색 성북 그린캠퍼스 협의회 |



KU Green Campus 활동

신축 기숙사 개운산에 있는 학교 부지를 아시나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친숙한 이름, 개운산. 학교 뒷편에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개운산에 사실은 학교 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도에 표시된 진한 녹색부분이 고려대학교의 부지를 나타냅니다. 기숙사 올라가는 길 우측에 보이던 그 산자락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숙사와 주민 편의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기숙사 신축의 이점〉
1. 지속적 관리를 통한 환경 오염 방지
 2. 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3.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

기숙사 신축은 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답을 던져줄 뿐만 아니라, 개운산의 환경훼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건축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산림훼손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또한,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분류되던 으스스한 산기슭이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 편의시설도 건립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질 수 있겠니,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이 아닐까요?



식사 후 산책 겸, 공강 시간에 운동 삼아, 개운산 산자락을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개운산의 일부는 학교 부지입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이 개운산 산책로를 답사해 보니, 법대 후문 쪽 입구로 들어가 기숙사 쪽 출구로 나오면 약 20분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20분이 아쉽다면, 교내 녹지 캠퍼스를 관통하는 KU - 정의길을 따라 걷는 것도 좋습니다. KU 정의길은 안암병원입구부터 안암학사까지 이어지는 길로, 학교에서 조성한 생태길 중 하나입니다.



관리처 에너지-안전팀



우리 모두의 개운산을 아껴줍시다.

KU GREEN CAMPUS



후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간단한 것임을, 중요한 건 단지 마음가짐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막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방을 나설 때 전등을 끄고,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때 콘센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가까운 거리는 운동삼아 걸어다니는 등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사회에서 에너지 절약은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저희의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분이 많이 계시길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 박승진

지난 여름방학은 내 대학생활의 첫 방학이자 그린캠퍼스 활동과 함께한 알찬 방학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 없이 또 지원했다. 이번 그린캠퍼스 활동은 지난번과 다르게 전 기수 참가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다.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 일할 수 있었고, 다들 굉장히 친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나 이공계 캠퍼스 쪽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학생들이 '내일은 안하냐'고 물었을 때 학우분들께 무언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기뻐다. 사실 아직까지도 아쉬움은 많이 남는다. 아무래도 방학 한번만 하는 활동이다 보니 학생들과의 교류도 덜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예가 개운산 답사 및 캠페인이다. 고려대학교의 실태에 맞게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홍보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때그때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우리 학교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캠퍼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한번쯤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은 학생들에게, 교직원들에게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활동은 이러한 목적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 조선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친구가 추천해준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활동은 방학동안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6명의 홍보대사들이 모여 담요와 양말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교수님 인터뷰를 하고, 한국전력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벤치마킹도 하고, 개운산 환경보호 나눔행사도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과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양말과 담요 나눔행사이다. 준비한 행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아무리 작은 행사라도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고려대 그린캠퍼스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이 끝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해서 캠페인 기획까지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싶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 김소현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활동팀으로 약 한 달간 활동하면서 실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당연한 듯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 학교와 같은 공용시설 속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 그린캠퍼스를 하면서 빈 강의실에 난방이 가동되거나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이 켜져 있는 강의실이 매우 많았습니다. 공동생활을 할 때도 먼저 나서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작은 관심으로 그린캠퍼스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 김민준

그린캠퍼스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교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활동했던 것도 보람있고 나눔행사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지만 저희가 직접 준비했던 선물이기에 더욱 의미 있었고 선물을 받아가는 학생들의 신난 얼굴을 보면서 나눠 주는 저희가 오히려 더 뿌듯하고 신이 났습니다. 5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활동한 팀원들 모두 고맙습니다! 11기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 김채영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여러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환경을 지식으로 배우기만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달동안 진행하며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환경은 누구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생계가 급급한 어떤 이에게는 배부른 소리고 사치 일 수 있다는 교수님의 인터뷰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전기차가 상용화되어도 자가용을 바꿀 여유가 없는 이에겐 환경보호라는 명분의 전기차는 사치일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앞으로 내가 환경을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번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 이세영



본 뉴스레터는 친환경적으로 개발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무알코올 인쇄와 식물성 공기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